

美타임지 '떠오르는 인물 100인' 장혜영 의원 선정...한국인 유일



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뽑혔다.

타임은 정치·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스포츠·과학·건강 등의 분야에서 매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 영국 가수 두 아리파, 미국의 청년 계관 시인인 아만다 고먼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는 장혜영 의원이 유일하다.

타임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공개하며, 장혜영 의원이 장애가 있는 동생의 탈(脫)시설을 돕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으며, 국회에 입성해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일도 전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이름 곁에는 늘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기후정의가 살아 숨쉬는 미래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래를 갖기 위해, 우리는 현재와 싸웁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김정태 회장, KLPGA 차기회장 맡을 듯



김정태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차기 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프로골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8일 "김정태 회장이 KLPGA 후임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열 현 회장이 일찌감치 물러날 뜻을 밝힌 가운데 KLPGA는 지난해 7월부터 김순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장 추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차기 회장 영입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실이 김정태 회장 추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현 회장대로라면 김정태 회장은 3월 11일 열리는 KLPGA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2018년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을 국내에서 개최했던 하나금융그룹은 2019년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KLPGA 정규 투어 대회로 개최하는 등 그동안 여자프로골프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정태 회장은 아시아 골프시장 성장을 위해 2019년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AGLPF)을 창설하는 등 유독 여자골프에 큰 애착을 보여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V리그 학폭 소용돌이 속 다시 들춰진 '12년전 상처'

이상열 감독 겨냥한 박철우 "정말 '피꺼숯'"

대표팀때 구타했던 이상열 감독 "어떤 일이든 대가 있을 것" 인터뷰 피해자 박철우, SNS에 분개의 글

학폭 연루 OK금융, 한전에 무릎 석진욱 감독은 "선수 학폭 죄송"



배구계 폭력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전력 박철우(왼쪽)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의 하루 전 관련 인터뷰에 대해 불평한 기색을 보였다. 스포츠동아DB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소속팀 동료들도, 12년 전 상처가 잠재로 꺼내어진 폭력 피해자도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OK금융그룹-한국전력의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맞대결이 열린 1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날은 심경섭(30)과 송명근(28)의 학폭 가해 사실이 알려진 뒤 OK금융그룹의 첫 경기였다. 심경섭과 송명근은 13일 학창 시절 학폭 전력이 밝혀지면서 자진해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석진욱 OK금융그룹 감독과 구단은 이를 수용했고, 둘은 속소를 떠난 상태다. 특히 급소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고환합상수술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육계는 물론 사회가 공분했다. 경기 개시 1시간 전 시작된 훈련에서 주장인 리베로 정성현을 필두로 고참들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굳은 표정까지 감추진 못했다.

OK금융그룹은 이날 전까지 3연패를 당하는 등 17승12패로 4위까지 처졌다.



배구계 폭력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전력 박철우(왼쪽)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의 하루 전 관련 인터뷰에 대해 불평한 기색을 보였다. 스포츠동아DB

시즌 내내 '볼 배구' 마지노선인 3위권을 사수해왔으나 최근 페이스가 떨어졌다. 이날 경기 준비 과정이 어수선했다. 박 감독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나도 체육인이다.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잘

은 교육 속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이 '가해'로 고개 숙였다면, 한국전력은 '피해'로 이를 악물었다. 한국전력 주포 박철우(36)는 경기를 앞두고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정말

'피꺼숯'이네...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감독은 2009년 남자배구대표팀 코치 시절 박철우를 구타했다. 박철우는 당시 왼 뺨과 복부에 멍이 든 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대한배구협회 징계를 받았던 이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KB손해보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17일 우리카드전을 앞두고 "난 (폭력) 경험자라 선수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다. (중략)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이러한 발언이 '2차 가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OK금융그룹과 박철우 모두 최대한 '평소처럼' 움직이고, 뛰여오르고, 포효하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에는 구심점이 없었다. 1세트를 손쉽게 따냈지만 2세트 15-13으로 앞선 상황에서 포지션 폴트를 범하고 와르르 무너졌다. 3세트에도 포지션 폴트를 범하는 등 기본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반면 박철우는 승리라는 목표에 집중하며 14득점(공격 성공률 56.5%)으로 활약했다. 한국전력이 세트스코어 3-1(20-25 25-21 25-15 25-19)로 승리하며 승점 49를 기록해 OK금융그룹(승점 48)을 4연패로 몰아넣고 4위로 올라섰다. 안산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한국 피겨 간판 '유영-차준환', 3월 세계선수권 정조준

24일부터 싱글 파견선수 선발전 유영 '트리플 악셀' 완벽한 구사 차준환 '쿼드러플 점프'도 기대

한국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유영(수리고)과 차준환(고려대)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정조준한다.

유영과 차준환은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제75회 전국 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1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싱글 파견선수 선발전에 나선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는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스웨

덴 스톡홀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유영은 지난해 초반의 좋았던 흐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풀 꺾여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월 유스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는 기쁨을 누렸고, 한 달 뒤인 2월 목동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선 개인 최고점(223.23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이후 예정됐던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선 7위(181.73점)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난해 취소됐던 세계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을 기회여서 무척 중요하다. 출전 선수 27명 중 2명만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지난해 "완벽하게 구사하겠다"고 약속한 트리플 악셀(3회전 점프)의 완성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영은 여자 싱글 시니어부 25번째 순서로 은반 위에 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 출전했던 김하늘(수리고)을 비롯해 임은수(신원고), 김예림(수리고)이 함께 경쟁한다.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은 단 한 장이 걸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노린다. 지난



유영

차준환

해 4대륙대회 남자 싱글에서 개인 최고점(265.43점)으로 5위에 오르며 기대를 키웠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공백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필수과제로 삼았던 쿼드러플(4회전) 점프에 이은 연결동작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00% 천연소가죽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 / 악취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천의를 걸어도 발이 편안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걸는 것만으로 건강과 교정이 OK!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신발!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뒤틀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뒤틀지창
- 넓은 발 볼과 발가락이 퍼지도록 설계
- 3중 특수 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변형된 발을 위하여 최적의 환경 유지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원터치 락(LOCK) 버튼으로 신고 벗기 편함
- 향균, 방취, 통풍의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 액션 가죽(비닐+가죽)이 아닌 100% 소가죽 사용



(남여공용)



모델명 올인원 PA1 (블랙) 올인원 PA3 (브라운)

피로를 흡수하며 걸을수록 편해진다!! 몸을 바로 잡아주는 자세교정용 기능성 신발!!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오솔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활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세계적인 브랜드 비버리 힐즈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고 사계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올인원 천연가죽 남녀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교정발 정렬과 지지에 발 변형 예방과 무릎, 고관절과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며 발바닥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과 전달력 감소 및 불안정한 걸음 걸이 개선과 함께 발모양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동시에 혈액과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발은 제 2의 심장이라 불릴만큼 무병장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에 기능성 건강 신발은 현대인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쿠션감이 좋은 인soles를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험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

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으며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하며 부드럽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생산되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제작되고 액션가죽이 아닌 100%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튼튼하여 직장인사회의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진가를 발휘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파이런증장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솔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였고 인체에 중요한 용원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성 건강 신발로 급 부상하고 있다.

1켠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구입 문의전화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사이즈 : 230 / 235 / 240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NAVER 검색엔진 진수테크쇼핑 등겨보내오